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과 음주와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심정아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과 음주와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Alcohol Drinking in Korean
Adolescents

2019년 2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심정아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과 음주와의 관련성

지도교수 류 소 연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심 정 아

심정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종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성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류소연 (인)

2018년 11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iii
ABSTRACT	iv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 목적	3
II.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	4
B. 이용 변수	4
C. 자료 분석	6
III. 연구 결과	
A. 청소년의 일반적, 가족 및 주위환경, 정신건강 특성 및 음주	7
B. 청소년의 일반적, 가족 및 주위환경, 정신건강 특성과 음주와의 관계	10
C.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과 음주와의 관련성	15

IV. 고찰	23
V. 요약 및 결론	27
참고문헌	28

표 목 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7
Table 2. Characteristics of family and surrounding environment	8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and alcohol drinking.....	9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lcohol drinking.....	11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adolescents and alcohol drinking	13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health and alcohol drinking in adolescents	14
Table 7.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perception and alcohol drinking	16
Table 8. The relationship between sufficiency of sleep and alcohol drinking	18
Table 9.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lcohol drinking	20
Table 10.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alcohol drinking	22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Alcohol Drinking in Korean Adolescents

Shim, Jung-Ah

Advisor : Prof. Ryu, So-Yeon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mental health (stress perception, sufficiency of sleep,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on alcohol drinking in Korean adolescents.

Method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use the data from 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7), and the number of study subjects was 62,27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ged 12-18 year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ental health effects on alcohol drinking

Results : The odds ratios (ORs) of alcohol drinking for adolescents who perceived stress a little and who perceived a lot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perceived stress were 1.05 (95% confidence interval, 0.98-1.13) and 1.33 (95% confidence interval, 1.24-1.43) respectively. The ORs of alcohol drinking adolescents who insufficient sleep and who moderate sleep compared to those who enough sleep was 1.22 (95% confidence interval,

1.14-1.31) and 1.46 (95% confidence interval, 1.36-1.57) respectively. The ORs of alcohol drinking for adolescents who depressed more than those who not depressed was 1.63 (95% confidence interval, 1.54-1.71) and the ORs of adolescents who do suicidal ideation more than those who do not suicidal ideation was 1.57 (95% confidence interval, 1.46-1.68).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ed that mental health such as stress perception, sufficiency of sleep ,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was associated with alcohol drinking of adolescents. Proper educational program will be needed to prevent alcohol drinking and promote mental health in adolescent period.

Key Words : Adolescent, Alcohol drinking, Depression, Korean Mental health, Stress perception, Sufficiency of sleep, Suicidal ideation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관성 물질로 기분, 지각, 신체기능, 의식 등에 영향을 미치며, 술이 지닌 유해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술을 중추신경 억제제인 약물로 분류하고 있다(Won, 2009). 술이 인체에 들어가면 빠른 속도로 뇌신경세포에 알코올이 확산되어 뇌의 마비현상이 일어나 감각과 운동이 약해지며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력 감퇴가 생긴다. 청소년의 뇌 발달에서 신경세포 간의 접속 고도화는 16세 때 완성되어지며 이 시기에 술을 마시게 되면 뇌의 손상을 가져와 학습장애를 일으키고 성장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발육부진 등 성장장애를 초래한다(Nam, 1993). 청소년들에게는 성인보다 적은 알코올로도 심장, 장, 간 등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Bae & Cha, 2014), 청소년기 음주는 이 시기의 중요한 과제인 정서적 자기 형성에 장애를 가져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Nam, 1993).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전체 16.1%이며 남학생 18.2%, 여학생 13.7%로 여전히 청소년의 음주가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실태를 보면 본인이 마신 술을 구하는 질문에서 편의점, 가게에서 구입 가능한 경우가 32.1%, 식당, 소주방, 호프집, 나이트 클럽 등 술집에서 구입 가능한 경우가 5.6% 였고, 현재 청소년 음주자의 주류 구매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이 구입 가능한 경우가 41.6%로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KCDC, 2017). 이러한 환경은 주변 환경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미디어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술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Song, 2018) 청소년들에게 술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음주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르게 감정과 정서의 기복이 심하고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정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는 경향성이 크고 과격하고 격렬한 행동을 표출하기 쉬운 특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집단이 경험하지 못하는 독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Kim, 2008).

또한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변화를 시작으로 자아 정체감 형성,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및 스트레스로 많은 심리적 변화 및 정신적 압박감을 겪게 된다(Hyun et al, 2004).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Kim & Lee, 2014). 스트레스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잠이 부족해지거나, 우울감이 심해지는 경우,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별다른 거부감 없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음주를 선택하게 되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Yim, 2010). 음주로 일시적 감정 완화 경험을 한 뒤에 음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해소방법으로 술에 의존하면서 자아개념이 확립되지 않는 청소년에게서 마시지 않아야 하는 술을 마셔도 되는 것처럼 인지하게 된다(Jung, 2013). 청소년의 우울처럼 부정적 감정의 해소로서 음주를 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음주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므로(Bae & Cha, 2014) 청소년의 음주의 통제 및 금주가 필요하다.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37.2%, 우울감 경험율 25.1%, 주관적 수면충족률 25.1%, 자살생각률 12.1%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KCDC, 2017).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음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Park & Rhee, 2005; Jeon & Lee, 2010; Yoo & Lee, 201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문제음주에 대한 연구들과 문제음주에 대한 영향(Suh, 2013; Cho, 2014; Pyo et al, 2016; Song, 2018)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선행연구에서의 음주 예측요인으로 성별, 가정환경, 학업성적 등의 개인적인 특성과 대중매체, 가족, 친구와 관련된 사회적 특성 등이 많이 다루어져 있고(Kuo et al 2006; Suh, 2013; Cho, 2014; Pyo et al, 2016),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인 스트레스, 수면충족, 우울, 자살생각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는 부족하다. 외국 연구의 논문(Barrientos-Gutierrez et al, 2007; Giskes et al, 2011; Ansoleaga et al, 2012)을 보면 청소년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된 연구가 있으나 국내 청소년에서의 근거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음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보내야 하는 청소년기에 술은 마셔서는 안 되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정신건강 상태와 음주는 성인과 구별되어야 하는 발달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고 정신건강을 해결하는데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하지 못한 정신건강이 음주를 하게 되는 서로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보호차원에서도 다각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건강 해소방법의 연구와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가족 및 주위환경 특성, 정신건강 특성 및 음주 상태를 파악한다.
-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가족 및 주위환경 특성, 정신건강 특성과 음주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제 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활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음주, 비만, 식생활, 손상 등 15개 영역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1~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이다.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는 2017년 4월 기준의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39개 지역군과 학교급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17개 층으로 나누어 표본 학교에 속한 장기결석, 문자해독장애 학생, 특수아동은 제외대상으로 한 62,2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KCDC, 2017).

B. 이용 변수

1. 일반적 특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주관적 학업성적, 흡연, 적절한 신체활동을 이용하였다. 성별은 남, 여, 학년은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주관적 학업성적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업성적이 어떻습니까?’에 대해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흡연은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문항으로 흡연 경험 없다, 있다고 분류하였다. 적절한 신체활동은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한 날은 며칠입니까?’에 대해 주 3일 이상인 경우 ‘적절한 신체활동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한 신체활동을 안한다’로 분류하였다.

2. 가족 및 주위환경 특성

청소년의 가족 및 주위환경 특성은 거주형태, 부모여부, 형제여부, 부모학력, 주관적 경제상태를 이용하였다. 거주형태는 ‘현재 거주형태는 어떻습니까?’ 문항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와 친척집에서 살거나 하숙, 보육시설에 살고 있을 경우 ‘그 외’로 분류하였고, 부모의 생존 여부에서 ‘부모 모두 계심’, ‘편부모’, ‘부모 안계심’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각각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학교 졸업 포함), 잘 모름, 부모 안계심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에 대해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3. 정신건강 특성

정신건강 특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 많은 논문에서 다루어져 있던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수면충족, 우울감 경험, 자살 생각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에 대해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고 분류하였다. 주관적 수면충족은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해 충분하다, 그저 그렇다, 충분하지 않다고 분류하였다. 우울감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없다’와 ‘있다’로 분류하였다. 자살생각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렇다’, 없었던 경우에는 ‘아니다’로 하였다.

4. 음주

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최근 30일 동안 마신 날이 없었던 경우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1일 이상 음주를 한 경우를 음주를 한 적이 있다고 분류하였다.

C.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 < 0.05$ 로 정하였다. 분석은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를 고려한 복합표본분석 모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일반적, 가족 및 주위환경, 정신적 특성 및 음주 경험은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청소년의 일반적, 가족 및 주위환경, 정신건강 특성과 음주와의 관계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음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의 일반적, 가족 및 주위환경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A. 청소년의 일반적, 가족 및 주위환경, 정신건강 특성 및 음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52.1%와 47.9%이었고,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 14.8%, 고등학교 3학년이 18.6%이었다. 주관적 학업상태는 중간이 76.4%로 가장 많았고,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7%, 신체활동을 잘하지 않는 경우는 62.7%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	N	e%(se)
Sex		
Male	31,624	52.1(1.3)
Female	30,652	47.9(1.3)
Grade		
Middle school grade 1	10,189	14.8(0.3)
Middle school grade 2	10,377	15.4(0.3)
Middle school grade 3	10,319	15.1(0.3)
High school grade 1	10,165	17.1(0.3)
High school grade 2	10,800	19.0(0.3)
High school grade 3	10,426	18.6(0.3)
Academic performance		
High	8,528	13.6(0.2)
Middle	47,624	76.4(0.2)
Low	6,124	9.9(0.1)
Smoking		
No	54,126	86.3(0.3)
Yes	8,150	13.7(0.3)
Physical activity		
No	38,399	62.7(0.4)
Yes	23,877	37.3(0.4)
Total	62,276	100.0

가족 및 주위환경 특성에서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은 95.4%로 가장 많았고, 부모 생존 여부에는 양쪽 부모 모두 있는 경우는 94.4%, 형제 여부에서는 외동이 아닌 형제가 있는 경우가 86.3%이었다. 부모 학력 중에 아버지, 어머니 학력 모두 대학 이상 학력이 아버지 52.4%, 어머니 47.8%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 경제상태는 높을 때 40.4%, 중간이 45.6%이었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family and surrounding environment

Variable	N	e%(se)
Living type		
With family	59,162	95.4(0.3)
Other	3,114	4.6(0.3)
Parent		
Both parents	58,543	94.4(0.1)
Single parent	3,074	4.6(0.1)
No parent	659	1.0(0.0)
Brother		
No	8,470	13.7(0.2)
Yes	53,806	86.3(0.2)
Fa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1,186	1.8(0.1)
High school	15,908	25.2(0.4)
College or more	31,535	52.4(0.6)
Unknown	10,998	16.6(0.2)
No parent	2,649	4.0(0.1)
Mo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1,009	1.5(0.1)
High school	19,427	31.4(0.4)
College or more	29,005	47.8(0.6)
Unknown	10,516	15.9(0.2)
No parent	2,319	3.4(0.1)
Economic status		
High	24,802	40.4(0.4)
Middle	28,582	45.6(0.3)
Low	8,892	14.1(0.2)

정신건강 특성에서 스트레스 인지는 많이 느끼는 경우 37.2%, 조금 느끼는 경우 42.6%, 느끼지 않을 경우 20.2%였으며, 주관적 수면충족은 충분할 때 25.1%, 그저 그럴 때 32.2%, 불충분할 때 42.6%, 우울감 경험이 있는 경우 25.1%,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경우 12.1%이었다. 음주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16.1%이었다(Table 3).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and alcohol drinking

Variable	N	e%(se)
Stress perception		
Much more	23,259	37.2(0.3)
A little	26,271	42.6(0.2)
Almostly not	12,746	20.2(0.2)
Sufficiency of sleep		
Enough	16,148	25.1(0.3)
Moderate	20,052	32.2(0.2)
Insufficient	26,076	42.6(0.3)
Depression		
No	46,664	74.9(0.2)
Yes	15,612	25.1(0.2)
Suicidal ideation		
No	54,692	87.9(0.2)
Yes	7,584	12.1(0.2)
Alcohol drinking		
No	52,679	83.9(0.3)
Yes	9,597	16.1(0.3)

B. 청소년의 일반적, 가족 및 주위환경, 정신건강 특성과 음주와의 관계

청소년의 일반적, 가족 및 주위환경, 정신건강 특성에 따른 음주와의 관계를 보면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학년, 주관적 학업성적, 흡연, 적절한 신체활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현재 음주는 남학생이 18.2%, 여학생이 13.7%로 남학생의 음주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학년에는는 중학교 1학년 4.2%에서 고등학교 3학년 26.9%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율이 증가하여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학업성적에 따른 음주율은 상 14.0%, 중 15.2%, 하 25.4%로 학업성적이 낮을 때 음주율이 높았고, 흡연에서는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 10.7%,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49.8%, 적절한 신체활동에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15.3%, 신체활동을 할 경우 17.3%로 음주의 영향이 있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lcohol drinking

Unit : e%(se)

Variable	Alcohol drinking		p-value
	No	Yes	
Sex			
Male	81.8(0.4)	18.2(0.4)	<0.001
Female	86.3(0.4)	13.7(0.4)	
Grade			
Middle school grade 1	95.8(0.2)	4.2(0.2)	<0.001
Middle school grade 2	92.3(0.3)	7.7(0.3)	
Middle school grade 3	89.0(0.4)	11.0(0.4)	
High school grade 1	83.5(0.5)	16.5(0.5)	
High school grade 2	74.9(0.6)	25.1(0.6)	
High school grade 3	73.1(0.7)	26.9(0.7)	
Academic performance			
High	86.0(0.4)	14.0(0.4)	<0.001
Middle	84.8(0.3)	15.2(0.3)	
Low	74.6(0.7)	25.4(0.7)	
Smoking			
No	89.3(0.2)	10.7(0.2)	<0.001
Yes	50.2(0.7)	49.8(0.7)	
Physical activity			
No	84.7(0.3)	15.3(0.3)	<0.001
Yes	82.7(0.3)	17.3(0.3)	

: Tested by Rao-Scotte chi-squre test

가족 및 주위환경 특성에서 거주형태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 경우 현재 음주를 하는 경우가 15.6%, 함께 살지 않을 경우 26.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른 음주율은 양쪽 부모가 모두 계실 경우 15.7%, 한쪽 부모만 계실 경우 20.0%, 부모가 안 계실 경우 32.0%, 형제 여부에 따른 음주율은 형제가 없을 경우 17.3%, 형제가 있을 경우 15.9%로 음주의 영향이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음주율은 중학교 이하 26.5%, 고등학교 20.1%, 대학교 이상 14.5%, 잘모름 12.1%, 아버지 안계실 경우 22.9%이었고, 어머니 학력에 따른 음주율은 중학교 이하 23.8%, 고등학교 19.9%, 대학교 이상 14.4%, 잘모름 11.8%, 어머니 안계실 경우 24.5%로 음주의 영향이 있었다. 경제적 상태에 따른 음주율은 경제적 상태가 높을 경우 14.9%, 중간일 경우 15.5%, 낮을 경우 21.2%로 음주의 영향이 있었으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adolescents and alcohol drinking

Unit : e%(se)

Variable	Alcohol drinking		p-value
	No	Yes	
Living type			
With family	84.4(0.3)	15.6(0.3)	<0.001
Other	73.7(1.2)	26.3(1.2)	
Parent			
Both parents	84.3(0.3)	15.7(0.3)	<0.001
Single parent	80.0(0.9)	20.0(0.9)	
No parent	68.0(1.9)	32.0(1.9)	
Brother			
No	82.7(0.5)	17.3(0.5)	<0.001
Yes	84.1(0.3)	15.9(0.3)	
Fa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73.5(1.3)	26.5(1.3)	<0.001
High school	79.9(0.4)	20.1(0.4)	
College or more	85.5(0.3)	14.5(0.3)	
Unknown	87.9(0.4)	12.1(0.4)	
No parent	77.1(0.9)	22.9(0.9)	
Mo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76.2(1.4)	23.8(1.4)	<0.001
High school	80.1(0.4)	19.9(0.4)	
College or more	85.9(0.3)	14.4(0.3)	
Unknown	88.2(0.4)	11.8(0.4)	
No parent	75.5(1.0)	24.5(1.0)	
Economic status			
High	85.1(0.3)	14.9(0.3)	<0.001
Middle	84.5(0.3)	15.5(0.3)	
Low	78.8(0.5)	21.2(0.5)	

: Tested by Rao-Scotte chi-squre test

정신건강 특성에 따른 음주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 18.9%, 조금 느끼는 경우 14.9%, 느끼지 않을 경우 13.4%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경우 음주경험이 높았고, 주관적 수면 충족에 따른 음주율은 수면이 충분할 경우 11.0% 그저 그럴 경우 15.1% 충분하지 않을 경우 19.8%로 충분한 수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음주가 높았다. 우울감에 따른 음주율은 우울감이 없는 경우 13.7%, 우울감이 있는 경우 23.1%로 우울감이 있는 경우 음주율이 높았고, 자살생각에 따른 음주율은 자살생각이 없는 경우 15.1%,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 23.4%로 자살생각이 있을 경우 음주율이 높았으며 인지 수준에 따라 음주의 유의가 달랐다 (Table 6).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health and alcohol drinking in adolescents

Unit : e%(se)

Variable	Alcohol drinking		p-value
	No	Yes	
Stress perception			
Much more	81.1(0.3)	18.9(0.3)	<0.001
A little	85.1(0.3)	14.9(0.3)	
Almostly not	86.6(0.4)	13.4(0.4)	
Sufficiency of sleep			
Enough	89.0(0.3)	11.0(0.3)	<0.001
Moderate	84.9(0.4)	15.1(0.4)	
Insufficient	80.2(0.4)	19.8(0.4)	
Depression			
No	86.3(0.3)	13.7(0.3)	<0.001
Yes	76.9(0.4)	23.1(0.4)	
Suicidal ideation			
No	84.9(0.3)	15.1(0.3)	<0.001
Yes	76.6(0.6)	23.4(0.6)	

: Tested by Rao-Scotte chi-squre test

C.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과 음주와의 관련성

청소년의 정신건강특성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모든 일반적, 가족 및 주위환경 특성과 정신건강 특성을 독립변수로, 음주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지 않는 군에 비해 많이 느낀 경우 음주에 대한 교차비 1.33(95%신뢰구간 1.24-1.43), 조금 느낀 경우 음주에 대한 교차비 1.05 (95%신뢰구간 0.98-1.13)으로 유의하였다. 그 외에 학년별로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관적 학업상태에서는 학업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학업성적이 낮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보다 음주위험이 높았고 흡연을 하는 학생일수록, 가족과 함께 살지 않거나, 형제가 없이 외동일 때 음주의 위험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음주의 위험이 낮았고, 신체활동을 하는 청소년보다 하지 않는 청소년이, 경제상태가 높은 것보다 중간이거나 낮을 때 음주의 위험이 낮았다(Table 7).

Table 7.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perception and alcohol drinking

Variable	Alcohol drinking
	OR(95%CI)
Stress perception (/Almostly not)	
Much more	1.33 (1.24-1.43)
A little	1.05 (0.98-1.13)
Sex (/Female)	
Male	0.96 (0.89-1.27)
Grade (/Middle school grade 1)	
Middle school grade 2	1.57 (1.39-1.78)
Middle school grade 3	2.11 (1.86-2.39)
High school grade 1	3.19 (2.82-3.60)
High school grade 2	5.16 (4.45-5.83)
High school grade 3	5.46 (4.83-6.18)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dle	0.95 (0.89-1.03)
Low	1.26 (1.13-1.39)
Smoking (/No)	
Yes	6.34 (5.96-6.74)
Physical activity (/Yes)	
No	0.79 (0.76-0.84)
Living type (/With family)	
Other	1.23 (1.10-1.38)
Parent (/No parent)	
Both parents	0.88 (0.55-1.40)
Single parent	0.90 (0.68-1.21)
Brother (/Yes)	
No	1.02 (0.95-1.10)
Fa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0.78 (0.66-0.92)
College or more	0.69 (0.58-0.81)
Unknown	0.73 (0.61-0.88)
No parent	0.78 (0.58-1.05)
Mo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1.00 (0.84-1.19)
College or more	0.87 (0.72-1.05)
Unknown	0.77 (0.63-0.95)
No parent	0.90 (0.68-1.20)
Economic status (/High)	
Middle	0.90 (0.84-0.95)
Low	0.92 (0.86-0.99)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주관적 수면충족에서는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한 경우 보다 적당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의 음주에 대한 교차비 1.22(95%신뢰구간 1.14-1.31),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경우 음주에 대한 교차비 1.46 (95%신뢰구간 1.36-1.57)로 유의하였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관적 학업상태에서는 학업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학업성적이 낮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보다 음주위험이 높았고, 흡연을 하는 학생일수록, 가족과 함께 살지 않거나, 형제가 없이 외동일 때 음주의 위험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음주의 위험이 낮았고, 신체활동을 하는 청소년보다 하지 않는 청소년이, 경제상태가 높은 것보다 중간이거나 낮을 때 음주의 위험이 낮았다(Table 8).

Table 8. The relationship between sufficiency of sleep and alcohol drinking

Variable	Alcohol drinking
	OR(95%CI)
Sufficiency of sleep (/Enough)	
Moderate	1.22 (1.14-1.31)
Insufficient	1.46 (1.36-1.57)
Sex (/Female)	
Male	0.96 (0.90-1.03)
Grade (/Middle school grade 1)	
Middle school grade 2	1.56 (1.37-1.76)
Middle school grade 3	2.05 (1.80-2.32)
High school grade 1	2.98 (2.63-3.37)
High school grade 2	4.86 (4.30-5.51)
High school grade 3	5.16 (4.55-5.84)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dle	0.96 (0.89-1.04)
Low	1.29 (1.16-1.42)
Smoking (/No)	
Yes	6.29 (5.91-6.69)
Physical activity (/Yes)	
No	0.80 (0.76-8.43)
Living type (/With family)	
Other	1.22 (1.08-1.37)
Parent (/No parent)	
Both parents	0.88 (0.55-1.40)
Single parent	0.90 (0.67-1.21)
Brother (/Yes)	
No	1.02 (0.95-1.10)
Fa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0.77 (0.65-0.91)
College or more	0.68 (0.57-0.80)
Unknown	0.73 (0.61-0.87)
No parent	0.78 (0.58-1.05)
Mo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1.00 (0.84-1.20)
College or more	0.87 (0.73-1.05)
Unknown	0.78 (0.64-0.95)
No parent	0.91 (0.68-1.21)
Economic status (/High)	
Middle	0.88 (0.83-0.94)
Low	0.92 (0.85-0.99)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우울감에서는 우울감이 없는 경우에 비해 우울감이 있을 경우 음주에 대한 교차비 1.63(95%신뢰구간 1.54-01.71)로 유의하였다. 그 외에 학년별로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관적 학업상태에서는 학업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학업성적이 낮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보다 음주위험이 높았고, 흡연을 하는 학생일수록, 가족과 함께 살지 않거나, 형제가 없이 외동일때 음주의 위험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음주의 위험이 낮았고, 신체활동을 하는 청소년보다 하지 않는 청소년이, 경제상태가 높은 것보다 중간이거나 낮을 때 음주의 위험이 낮았다(Table 9).

Table 9.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lcohol drinking

Variable	Alcohol drinking
	OR(95%CI)
Depression (/No)	
Yes	1.63 (1.54-1.71)
Sex (/Female)	
Male	0.99 (0.92-1.06)
Grade (/Middle school grade 1)	
Middle school grade 2	1.56 (1.38-1.77)
Middle school grade 3	2.08 (1.83-2.36)
High school grade 1	3.21 (2.85-3.63)
High school grade 2	5.20 (4.60-5.87)
High school grade 3	5.51 (4.87-6.24)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dle	0.94 (0.87-1.01)
Low	1.22 (1.10-1.35)
Smoking (/No)	
Yes	6.10 (5.73-6.49)
Physical activity (/Yes)	
No	0.81 (0.77-0.85)
Living type (/With family)	
Other	1.21 (1.07-1.36)
Parent (/No parent)	
Both parents	0.90 (0.57-1.43)
Single parent	0.92 (0.68-1.24)
Brother (/Yes)	
No	1.01 (0.94-1.08)
Fa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0.79 (0.67-0.94)
College or more	0.69 (0.58-0.81)
Unknown	0.75 (0.63-0.89)
No parent	0.78 (0.58-1.05)
Mo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1.00 (0.84-1.19)
College or more	0.87 (0.72-1.04)
Unknown	0.78 (0.64-0.96)
No parent	0.90 (0.68-1.20)
Economic status (/High)	
Middle	0.92 (0.85-0.96)
Low	0.91 (0.85-0.98)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자살생각에서는 자살생각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 음주에 대한 교차비 1.57(95%신뢰구간 1.46-1.68)로 유의하였다. 그 외에 음주에 대해 학년별로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관적 학업상태에서는 학업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학업성적이 낮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보다 음주위험이 높았고, 흡연을 하는 학생일수록, 가족과 함께 살지 않거나, 형제가 없을 때 음주의 위험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음주의 위험이 낮았고, 신체활동을 하는 청소년보다 하지 않는 청소년이, 경제상태가 높은 것보다 중간이거나 낮을 때 음주의 위험이 낮았다(Table 10).

Table 10.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alcohol drinking

Variable	Alcohol drinking
	OR(95%CI)
Suicidal ideation (/No)	
Yes	1.57 (1.46-1.68)
Sex (/Female)	
Male	0.95 (0.89-1.02)
Grade (/Middle school grade 1)	
Middle school grade 2	1.56 (1.86-2.39)
Middle school grade 3	2.10 (1.86-2.39)
High school grade 1	3.25 (2.88-3.67)
High school grade 2	5.28 (4.67-5.97)
High school grade 3	5.63 (4.97-6.37)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dle	0.96 (0.89-1.03)
Low	1.26 (1.14-1.39)
Smoking (/No)	
Yes	6.22 (5.85-6.61)
Physical activity (/Yes)	
No	0.81 (0.77-0.85)
Living type (/With family)	
Other	1.21 (1.08-1.36)
Parent (/No parent)	
Both parents	0.91 (0.57-1.45)
Single parent	0.93 (0.69-1.25)
Brother (/Yes)	
No	1.01 (0.94-1.09)
Fa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0.79 (0.67-0.93)
College or more	0.69 (0.59-0.82)
Unknown	0.74 (0.62-0.89)
No parent	0.79 (0.59-1.06)
Mo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1.01 (0.85-1.21)
College or more	0.88 (0.73-1.06)
Unknown	0.78 (0.64-0.96)
No parent	0.91 (0.68-1.21)
Economic status (/High)	
Middle	0.90 (0.85-0.96)
Low	0.92 (0.86-0.99)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IV. 고 찰

본 연구는 제 13차(2017)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음주예방 및 금주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2013년도 16.3%, 2014년도 16.7%, 2015년도 16.7% 2016년도 15%, 2017년도 16.1%로 해가 거듭되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KCDC, 2017). 이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로 음주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청소년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청소년에서의 음주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이런 맥락에서 음주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청소년의 다른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것과 같고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 특성인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수면충족, 우울감 경험, 자살생각에서 정신건강의 수준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37.2%, 조금 느끼는 경우 42.6%, 느끼지 않을 경우 20.2%이었고, 수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25.1%, 보통인 경우 32.2%,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42.6%, 우울감 경험이 있었을 경우 25.1%, 자살생각이 있었을 경우 12.1%이었다. 이에 따른 음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수면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우울감 경험이 있을 때, 자살생각이 있을 때, 음주의 경험이 증가함을 보였다.

스트레스 인지와 음주와의 관련성에서는 스트레스가 낮은 청소년보다 높은 청소년의 음주 경험이 높았으며, 스트레스와 음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음주량도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Kang et al, 2000).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은 성인과 다르며, 청소년기에 음주는 청소년기에 빈번한 대처 전략으로 학업과 진로에 관련한 스트레스가 많을 시기인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민감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Pascual et al, 2017).

주관적 수면과 음주와의 관련성에서는 수면이 불충분한 청소년이 수면이 충분한 청소년보다 음주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인지 판단력이 저하되고(Song, 2018) 주위 친구들이나 다른 환경적인 영향으로 술을 권하였을 때 거부감이 없이 음주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더욱 심한 입시 위주의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Lee & Kim, 2017).

우울감과 음주와의 관련성에서는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음주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높게 나왔으며 청소년들은 불안이나 우울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기 위해 술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 연구와 일치한다(Lansford et al, 2008). 하지만 우울과 음주와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며 어떤 상태가 먼저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Song, 2018).

자살생각과 음주와의 관련성에서는 자살생각을 하는 청소년은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음주경험이 높다. 자살행동은 성인과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음주의 주요 위험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ridge et al, 2006). 청소년의 경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평가보다 일시적인 우울한 기분이나 분노감, 충동성에 의해 자살생각에 이를 수 있으며(Kim, 2008) 이를 해소방법으로 음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많은 요인 중 특히 우울감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청소년의 자살과 우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고위험군을 찾아내어 고위험군이 될 수 있는 음주문제를 예방해야 함을 보여준다(Kim, 2013).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주관적 학업성적, 흡연, 적절한 신체활동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성별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정신건강에 음주의 영향력을 낮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있어서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점점 음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주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으며(Myung, 2003), 연령에 따른 음주량, 음주빈도에 차이를 보인

기존연구와(Jang, 2000) 일치하는 결과이다. 주관적 학업성적에서도 학업의 수준이 높은 학생들보다 낮은 학생들이 음주를 경험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예측된다. 흡연 경험은 흡연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에서 음주 경험이 6배 이상 차이가 나며 이 연구에서 정신건강 영향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것은 학생들의 흡연 경험에 노출 되었을 때 음주의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Lee, 2014; Lee & Kim, 2017) 이는 음주예방과 함께 흡연예방에도 적극적인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적절한 신체활동에서는 신체활동을 할 때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것보다 음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논문에서의 신체활동과 음주와의 관계는 고위험 음주와의 관계로 신체활동이 낮을 때 위험음주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Song, 2018), 음주의 행위가 사회적 분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인 활동의 맥락으로 이뤄지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에서도 영향이 있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및 주위환경 특성에서는 거주 형태, 부모 생존 여부, 형제의 유무, 부모 학력, 주관적 경제상태가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청소년보다 친척집에 살거나 고아원 등에서 지내는 청소년의 음주가 높다. 이것은 부모와의 동거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이라는 심리적지지 효과를 나타내어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Lee, 2018). 부모 생존 여부와 형제의 유무에서는 양쪽 부모가 있거나 편부모인 청소년이 부모가 안 계신 청소년보다 음주가 낮고, 형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혼자인 청소년이 음주에 더 노출이 됨을 보인다. 부모의 학력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중학교 이하 학력이었을 때의 청소년들의 음주가 높고, 주관적 경제 상태가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음주가 높다. 가정과 학교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청소년 시기의 친구 등의 지지는 청소년의 음주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소를 통제하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Lee et al, 2003).

본 연구결과에서 일반적 특성인 학년과 흡연에서 정신건강 특성에 비해 청소년의 음주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으로 학년이 증가할수

록 음주가 증가하고,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거나 학업성적이 낮거나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 학교, 친구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했을 때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때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불안정함으로써 음주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Yang, 2017).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해 정신적, 일반적, 가족적 특성이 모두 고려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상담이 선행된다면 음주예방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제시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로 시행되어 청소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학생들의 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음주에 영향을 주는가와 음주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지의 명확한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므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많다고 인지한 경우,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우울감을 느낀 경우,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 음주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성인과 구별되는 발달시기 상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시기인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조기에 문제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부족,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의 수준을 낮추고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건전한 방향의 정신건강 수준관리를 유도해야하며 청소년의 음주 예방 및 금주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적인 홍보 또한 필요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건강이 음주를 경험하게 되는 서로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건강 해소방법의 연구와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제 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며, 62,2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인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수면충족, 우울감 경험, 자살생각을 독립변수로 음주를 종속변수로 하여 빈도와 백분율, 카이제곱 검정,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스트레스 인지가 많이 느끼지 않는 군에 비해 조금 느끼는 경우 음주에 대한 교차비는 1.05(95%CI 0.98-1.13), 많이 느끼는 경우 교차비는 1.33(95%CI 1.24-1.43)으로 유의하였고, 주관적 수면충족은 충분한 군에 비해 중간인 경우 음주에 대한 교차비는 1.22(95%CI 1.14-1.31), 충분하지 않을 경우 1.46(95%CI 1.36-1.57)으로 유의하였다. 우울감 경험에서 우울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우울할 경우 음주에 대한 교차비는 1.63(95%CI 1.54-1.71)로 유의하며, 자살생각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 음주에 대한 교차비는 1.57(95%CI 1.46-1.68)로 유의하였다. 다른 요인인 성별, 학년, 주관적 학업성적, 흡연, 적절한 신체활동, 거주형태, 부모여부, 형제여부, 부모학력, 주관적 경제상태 모두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따른 음주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적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성인과 구별되는 발달시기 상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시기인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Ansoleaga E, Castillocarniglia A. Associations between social vulnerability, employment conditions and hazardous alcohol consumption in Chile. *Drug and Alcohol Review* 2012;32(3):254-261.
- Bae MS, Cha SE. Association between family socioeconomic context and adolescent alcohol use disorder (AUD): Focused on sex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14;19(3):241-263.
- Barrientos-Gutierrez T, Gimeno D, Mangione TW, Harest RB, Amick BC. Drinking social norms and drinking behaviours: A multi level analysis of 137 workgroups in 16 work site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07;64(9):602-608.
- Bridge JA, Goldstein TR, Brent DA.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06;47:372-394.
- Cho HC. A meta-analysis on the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alcohol use: From 1990 to 2012.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4;21(6):191-221.
- Giskes K, Turrell G, Bentley R, Kavanagh A. Individual and household level socioeconomic position is associated with harmful alcohol consumption behaviours among adul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2011;35(3):270-277.
- Hyun MS, Shim KH, Kim SA. Influencing factors on problem behaviors among adolescents: Focused on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4;34(2): 252-260.
- Jang SO. A Study on the questionable drinking condition and determinants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0;42: 372-396.
- Jeon GS, Lee HY. Associated factors of binge drinking and problem drinking among Korean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10;27(1):91-103.

- Jung JS. A Study on smoking characteristic of adolescent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factors—with a focus on changes in smoking characteristic by high school periods. *Korea Health Communication Association* 2013;9: 79-111.
- Kang KH, Lee, KS, Kim SL, Maing KH, Hong HS, Jung CH.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drinking and stress among firemen. *Kore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00;13:401-412.
- Kim BY. The relevance of the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 of metropolis teenager and mental health department.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2013;Korea.
- Kim SG. The effect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o adolescent suicide -based on mediation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008;29:66-93.
- Kim YJ, Lee CS.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6):539-547
- Kuo PH, Gardner CO, Kendler KS, Prescott CA. The temporal relationship of the onsets of alcohol dependence and major depression: Using a genetically informative study design. *Psychological Medicine* 2006;36(8): 1153-1162.
- Lansford JE, Erath S, Yu T, Pettit GS, Dodge KA, Bates JE. The developmental course of illicit substance use from age 12 to 22: links with depressive, anxiety, and behavior disorders at age 18.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08;49:877-885.
- Lee DH.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youth behavioral patterns, family environment, and stress on suicide. Master's thesis, Goryeo University, 2018;Korea.
- Lee HS. Effects of depression and impulsive behavior on smoking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4;22(2):67-76.
- Lee HJ, Kim DJ. Influence of mental health on smoking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6. *Journal of the Korea Wellness Association* 2017;12(3):423-431.

- Lee UK, Ji SH, Lee JU, Choi SM, Jung CS.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youth delinquency risk-factor and protective-factor scal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03; 11(2):57-70.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Youth White Paper, 2015.
-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thirteen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7 report.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 Myung KH.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leisure activity and drinking behavior.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3; Korea.
- Nam SH. Who is the teenager. Book publication Seowon, 30-32.
- Park KM, Rhee MK. Effects of perceived stress, social support and drinking motives on drinking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5;10(3):277-293.
- Pascual M, Montesinos J, Marcos M, Laso FJ, Guerri C. Gender differences in alcohol-induced immune response in human and animal adolescents with binge drinking: Role of TLR4. *Alcohol* 2017;60:221.
- Pyo EY, An JY, Jeong JO, Yi YJ. Effects of drinking, smoking and drug use experience on adolescents' sexual intercourse: using the data of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from 2010 to 201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6;29(3):299-309.
- Song HS. Gender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Korean youth mental health on binge drink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1):421-430.
- Suh KH. Characteristics of alcohol use, problematic drinking, and intention of quitting drink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with concurrent use of alcohol and cigarett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3;20(6): 243-264.
- Won YH. The Influences of parents' drink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perceived by juvenile on juvenile's drinking.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2009;Korea.

- Yang MY. Smoking, drinking,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through level-specific analysis of individuals and groups. Doctoral dissertation, Samyuk University, 2017;Korea.
- Yim ML.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stress, despair,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c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0; Korea.
- Yoo CY, Lee JK. Impacts of psychosocial influential factors o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016;27(4):93-121.